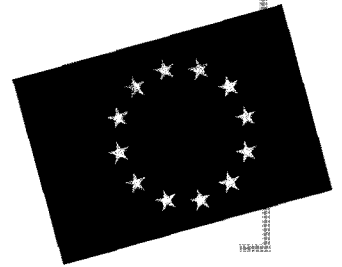


연·중·기·획
국가별 육계산업 현황

제7편

유럽연합(EU)의 육계산업



엄재상 박사
농협사료 마케팅본부

2008년에 유럽연합(EU) 27개국의 계육 생산량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사료가격 상승 및 에너지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매가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계육은 여전히 인기 있고 상대적으로 비교적 가격부담이 적은 단백질 공급원이다. 2009년에 들어와 사료가격이 낮아져 닭고기 대신 쇠고기 구매에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2009년 육계 생산은 1~2% 정도로 증가폭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09년 EU-27개국의 계육수출입 현황을 볼 때 태국으로부터 수입량이 증가하여 역조가 예상되는데, 이것은 EU 수출 감소 수준을 능가하는 규모이다. 2007년 7월 이후, 브라질과 태국은 2007년에 설정된 할당관세율하에서 닭고기 수출을 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EU의 국내 가격이 여전히 높게 형성된다면 할당량 이상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27의 초기 계육 수출시장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가 될 것으로 보이며, 프랑스 육계 수출은 경기회복으로 인해 2008년과 2009년에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유럽연합의 닭고기 수급현황

가. 생산현황

앞서 언급했듯이 2007년 폴란드에서 AI가 발생되었음도 불구하고, 2008년도 EU-27의 계육생산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전 상황으로 돌아갔다. AI로 인한 무역제한으로 생

산량이 감소되는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육계생산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 육계산업은 낙관적이고 가공회사(계열주체)는 D/D/D(부화/사육/도계) 원산지 표시의 성공적인 판매전략에 힘입어 물량확보를 위한 신규 위탁 생산농가를 찾고 있다. 프랑스 같은 다른 EU 국가와 마찬가지로 베네룩스의 2008년 계육생산은 자국내 소비 증가와 EU회원국간 수출 증가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기대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EU 닭고기로 대체되고 있고 이들 국가의 계육생산이 증가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8년 루마니아의 계육생산은 전년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 및 생산비용의 증가로 스페인 생산자들은 수익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 전체의 가공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료비용과 에너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양돈이나 쇠고기 산업보다 훨씬 성공적이다. 쇠고기, 양고기 그리고 정도가 덜한 돼지고기까지도 높은 가격으로 인해 소비를

〈표 1〉 닭고기 수급동향

(단위 : 천톤)

연도	2007		2008		2009	
	USDA	EU추정	USDA	EU추정	USDA	EU추정
생산	8,111	8,250	8,200	8,400	0	8,495
수입	640	652	650	670	0	680
총 공급량	8,751	8,902	8,850	9,070	0	9,175
수출	656	633	620	620	0	610
국내 총 소비	8,095	8,269	8,230	8,450	0	8,565
총 소비	8,751	8,902	8,850	9,070	0	9,175

※자료 : EU FAS Offices

〈표 2〉 EU-27의 계육 생산량(상위 5개국)

(단위 : 천톤)

연도	2007	2008	2009
영국	1,217	1,190	1,180
베네룩스	1,105	1,125	1,120
스페인	1,059	1,060	1,060
프랑스	921	965	1,000
폴란드	730	770	800

〈표 3〉 EU-27의 닭고기 수입현황(상위 5개국)

(단위 : 천톤)

연도	2007	2008	2009
베네룩스	248	268	273
영국	133	145	150
독일	106	110	110
스페인	37	40	40
프랑스	33	35	40

〈표 4〉 EU-27의 닭고기 수출현황(상위 5개국)

(단위 : 천톤)

연도	2007	2008	2009
프랑스	207	215	220
베네룩스	173	155	145
독일	71	80	80
폴란드	30	35	35
영국	26	20	20

줄어들었고, 그 부분을 닭고기가 대신하고 있다. 2009년 유럽의 곡물 작황의 호황으로 사료가격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전체 육류가격 안정을 가져와 쇠고기 시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2009년 EU-27의 계육생산은 소비증가와 맞물려 1~2% 소폭 증가로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표 2〉 참조).

나. 닭고기 수출입 전망

EU-27의 2008년 및 2009년 수급동향은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

일 것으로 예상된다(〈표 3〉, 〈표 4〉 참조).

다. 제3국과의 교역현황

브라질과 태국은 아르헨티나와 칠레 다음으로 EU-27의 닭고기 최대 공급처이다. 2005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92,000톤 이상의 닭고기를 수출한 미국은 병원균 절감처리(PRT, Pathogen Reduction Treatments)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수출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2005년 브라질과 태국은 과도하게 수입관

〈표 5〉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천톤)

품목	2005	2006	2007	2008*	2007(할당)
냉동육	11	8	21	30	
냉동부분육	387	272	161	150	-
닭고기 가공육	207	240	252	250	251
염지 제품	3	86	216	170	264
합계	608	606	650	600	-

※예상치

세를 부과한 염지처리한 닭고기 부분육의 EU 재평가에 대해 WTO에 소송했다. 2007년 6월 EU는 브라질과 태국산 염지 가공육, 칠면조 및 닭고기 가공품의 수입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을 만들었다.

염지가금육에 대한 신규 저율관세할당(TRQ)은 15.4%의 한계관세율에서 정해졌는데, 브라질 170,807톤, 태국 92,610톤과 제3국으로부터 828톤이었다. 추가로 8% 관세에서 닭고기 제품에 대한 TRQ는 브라질이 연간 79,447톤, 태국 160,033톤 그리고 그 외 국가가 11,433톤으로 재조정되었다.

염지가금육과 닭고기 제품에 대한 TRQ는 2007년에 설정되었고, AI와 관련해서 수입이 제한된 태국산 염지닭고기를 제외하고는 2008년에 재설정되었다.

EU의 계육수입은 저율관세할당(TRQ)이 확정됨에 따라 안정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혹자는 EU국내 가격이 높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추가로 1 Euro/kg의 관세율이 부담되더라도 초과할당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표 5) 참조.

EU의 계육 수출은 세계시장에서 브라질과 치열한 경쟁에 놓여 있고, 유로화의 강세도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EU 가공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으로부터 계육 수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국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현재 러시아는 발골육(뼈를 제거한 닭고기 제품)과 마찬가지로 냉동부분육(다리)을 우선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2008년 러시아는 위생적인 문제로 일부 EU국가들로부터 가공수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AI 문제로 2006년과 2007년초 감소된 이후 현 수출국 수는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동, 일부 아프리카와 러시아로 수출하는 프랑스는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AI 발생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시장에서 베네룩스의 육계수출은 2009년에도 계속적으로 감소가 진행될 것이다. 베네룩스는 EU 수출 회복에 유리한 제품군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베네룩스의 가공수출은 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 제한되어 있다.

라. EU국가의 소비현황

2008년 EU-27의 계육 수요는 AI 발생 이

〈표 6〉 EU-27의 국내 닭고기 소비량(상위 5개국)

(단위 : 천톤)

구분	2007	2008	2009
영국	1,473	1,450	1,450
스페인	1,089	1,095	1,095
프랑스	871	950	1,000
독일	847	880	890
폴란드	615	635	650

전으로 회복했으며, 2009년에 증가가 예상된다. 높은 사료비용으로 소매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닭고기는 일반소비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인기가 있고, 유럽연합의 이슬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보다도 깊은 관계가 있다(〈표 6〉 참조).

2. 관련 정책 및 현안문제

가. EU의 고비용 구조

EU의 계육생산자들은 사료를 비롯한 생산비용의 증가를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량 증가로 육계가격은 안정적이지만 수익은 감소로 돌아서고 있다. 닭고기가 중요한 먹거리라 할지라도 높은 가격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EU 계육생산자들은 그들 경쟁자들에 비해 자국내 높은 생산비용과 싸우고 있다. 유럽인들의 사회적 선호가 식품생산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사료 및 에너지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 그것은 유전공학으로 생산된 제품, 엄격한 생산방법, 환경제한 및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정책별로 생산비용구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

는다 하더라도 여러 정책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게 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다른 나라의 생산자들과는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EU 정책 결정자들은 이들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다양한 완화 전략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 정부는 유럽 식품생산 표준과 부합하는 수출품을 생산하도록 수출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표 7〉에서 보면 사육밀도가 낮아질수록 생산비의 증가로 농가 수익은 현저히 감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생산성의 개선은 이룰 수 있더라도 그 차이만큼의 수익개선은 가져오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유럽연합의 동물복지 정책

모든 사료내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이 2006년에 전면 금지되었고 항생제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닭고기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육계 단위 체중당 높은 사료단가 및 과사성장염과 같은 질병문제가 증가되고 있다. 이는 결국 생산단가를 상승시키며 세계 시장에서 유럽연합의 닭고기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한다.

〈표 7〉 육계 사육밀도 감소가 육계 농가의 수익에 미치는 결과

(단위 : 천톤)

항목	사육밀도		
	현재	38kg/m ²	30kg/m ²
입추시 사육밀도(수수/m ²)	21.8	18.2	14.2
농가당 병아리수수	89,467	74,693	58,277
출하시 체중(kg)	2.14	2.17	2.20
사료요구율	1.75	1.73	1.71
육성률	96.5	96.5	96.5
육계 수당 생산단가(유로/수)	0.3494	0.3573	0.3708
연간 회전일수	6.89	6.89	6.89
육계 수당 이익(유로)	0.1754	0.1854	0.1908
농가 수익성(유로)			
총 판매액	108,057	95,535	79,562
생산비용	96,398	96,398	96,398
농가수익	11,660	-863	-19,836

*인용 자료 : LEI, 2005

유럽연합에서도 동물복지에 관련된 제도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과 회원국간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2002년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세부 규정과 관련된 각 안들은 수시로 변경되어 재설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육계의 사육밀도는 2002년 육계의 최대 수용한도를 육성말기 기준 생체중 30kg/m²에서 제한하고, 환경조건이 갖춰진 계사의 경우 최대 수용한도를 38kg/m²까지 허용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현재 제시된 것에 의하면 33kg/m²를 규정하고 있으며, 500수 이상의 모든 육계 농장에 대해 환경조건(적정 환기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39kg/m²까지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이들 요구를 수용해야만 한다.

다. 육계산업에서의 연구 개발

유럽연합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변화는 유럽 가금 생산의 경쟁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올 것이다. 따라서 업계는 새로운 개념들을 창출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육계의 경우 항생제 사용금지에 따른 충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의 조합이 항생제 사용금지에 따른 성장 감소에 대한 최대 보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닭의 질병문제를 감소시킬 것으로 믿고 있다. 이는 항생제를 대체물질로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료배합의 변화, 사양프로그램, 사양관리와 같은 부가적인 수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육계산업에서 새로운 기술과 연구개발은 최종 제품의 판매단가를 최적화하고 조절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육계회사들은 제

품을 가공하여 상이한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각각의 시장은 특정 체중 범위, 육색과 같은 독특한 요구가 있다.

모든 육계 계열회사들은 도살시기에 같은 종류의 닭을 원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육계의 성장을 최적화하는 것은 경제적인 중요성을 가지는데 이는 육계 계열회사들이 적은 생산가격으로 가장 고가의 닭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경제적인 급여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출하고 있다.

라. 유럽연합내 육계산업의 당면과제

육계산업에서 사육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닭고기 생산자들은 적정 수익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에 있다. 각종 규제의 추가는 생산비용을 가중시켜 타 축종 산업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식품관련 산업에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며, 철저한 관리와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 이상의 규제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는 전략이 필요하다.

3. 맺음말

2050년 세계 인구는 90억이 될 것이며, 이는 현재보다 25억 이상 늘어나는 수치이다.

이것은 12~14년마다 10억의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며, 매일 20만명 이상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1990년 극빈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28%에서 2002년 19%로 감소했으며, 2015년에는 세계적으로 극빈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래도 여전히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계 인구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극빈층의 비율은 감소하더라도 절대적인 수치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세계 인구는 해마다 증가되는 것과 반대로 갈수록 줄어드는 한정된 토지에서 먹거리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것이다. 다만 식량 생산은 증가될 것이나, 늘어나는 인구와 감소되는 토지 경작면적으로는 이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모든 사람이 좋은 환경하에서 안전한 형태의 식량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적정 가격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또한 의미가 퇴색해질 것이다.

현재 유럽연합은 새로운 규제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상당한 딜레마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도 무조건적인 제도 도입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